노조 임금동결 결의

학교경제상황 및 직원 장기복지 고려

복지관련 '단체협약 요구안' 상정

노동조합은 5%로 결정된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포기하고 임금을 동결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김종원 노조위원장은 "학교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직원들의 복지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임금동결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가 학교측에 상정한 '97학년도 단체협약 요구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체협약 제22조와 관련하여 양 캠퍼스 사무 기술직 및 서울 캠퍼스 기능직 1, 2, 3종 인원 충원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정원을 확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은 1개월 이내에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자는 내용과 둘째,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1백 50구좌에 달하는 교원공제회 장기 급여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줄 것, 셋째 조합원 중 공로자를 표창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것 등이 있다.

또한 전국 대학 노동 조합연맹의 공동 요구안도 같이 상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 직원 단일 호봉제 실시 △실무 부서장 직원 임용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급 △여성 불평등 고용 및 차별 철폐 △탁아소 설치 △입시행정개선 △총장 선출의 민주적 제도 마련 △사학 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등.

〈취재부〉

한의대 증축 개관식 기념세미나 개최

한의과대학의 증축 개관식이 오는 25일 오후 5시 한의과대학 신관에서 열린다.

4층에 걸쳐 대규모 강의실을 확충하게 된 한의대는 개관식과 더불어 기념 세미나도 갖게 된다.

"21세기 한국 한의학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한의학의 연구 방향'이라는 주제로 홍원식 한국한의학연구소장의 발표가 '한방의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송재성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의 발표가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홍무창(한의예) 교수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한의학 교육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며 각각에 따른 토론도 이루어진다.

개관식과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실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의과대학 신관 1층 중경실에서 열린다.

9일 문리대 꽃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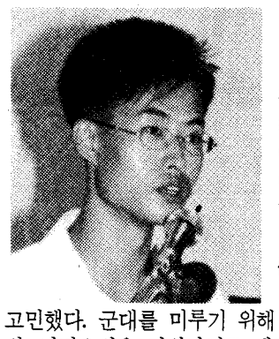
'문리대 꽃잔치'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문리대 학생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고자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 한얼패의 놀이마당, 과별소개, 학생회장 인사말, 과 학생회장 및 문리대학장 인사, 노래잔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적에 따라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 한의대 임봉수(본과 2) 전 비대위장

"한의계 전체 단합의 계기"



제적 · 복적된 경위는?

지난해 10월 한의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등록할 수 없다는 의지에 따라 모두 81명이 미등록, 제적당했다. 이번 복적은 교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적기간동안 힘들었던 점은?

많은 학생들이 군대문제로 고민했다. 군대를 미루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행정병, 비디오병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한의대내 분위기는?

일년 반동안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업에 몰두하고 있다. 학기당 이수해야 할 학점도 많아졌고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해 적응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

오랜 투쟁기간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한방 정책 담당 심의관실이 마련되긴 했지만 사실 투쟁기간이나 노력에 비하면 미미한 성과다. 그러나 한의계 전체가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존재를 인식시켰다는 점에서는 만족한다. 다만 알리기는 했지만 선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학문의 발전이 지체된 것도 안타깝다.

한약 분쟁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작년에 한약 조제시험 무효화를 주장했지만 결국 2만명이 넘는 한약 조제 약사가 배출되었다. 자격증도 다 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쟁점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문제될 게 있다면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이나 중국 유학생들과 침구사들의 공식적인 인정 요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의학이 양의학과 어깨를 겨누게 될 때까지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의학이 소수의 의학을 넘어 '민중의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정 기자〉

수원 식수 정상 공급

물부족으로 몸살을 앓던 수원캠퍼스가 지난 1일부터 정상 공급을 실시했다.

난방과 온수공급에 사용하던 물을 전환, 1일 1백톤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대 옆 6호정의 연결로 실시한 이번 물공급은 국선관과 애지원을 제외한 건물에는 오후 5시 이후 단수한다.

또한 관리과는 "영동 · 영덕지구 도로공사가 4월말 실시될 것으로 보여 용인시 관할 상수도 사업소에서 5월 중 상수도 공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수도물 공급이 가능해 매년 겪던 식수난은 영구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서관 검색시스템 설치

CD-ROM 타이틀 개인 PC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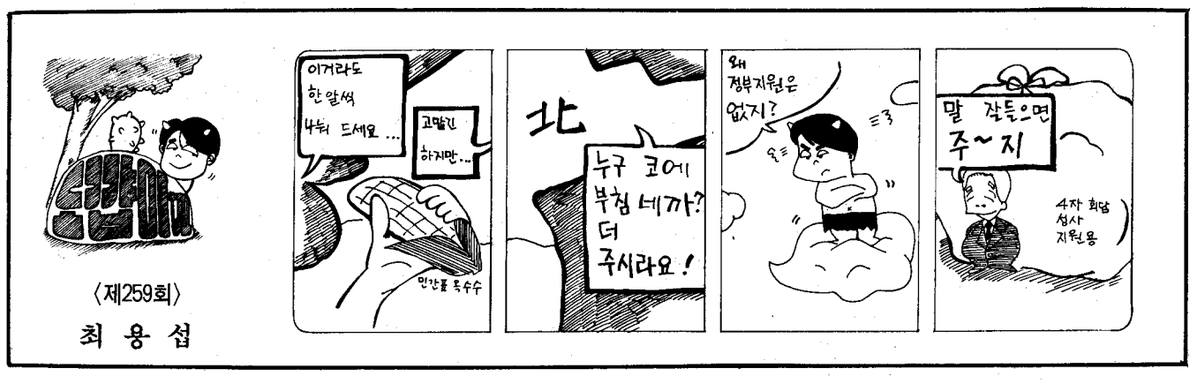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3일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CD-ROM 타이틀검색시스템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설치하였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학술용CD-ROM타이틀검색을 위한 CD-Networking 시스템인 NTRIGUE시스템은 개인 PC로 열람할 수 있으며 Windows 3.1과 95 환경에서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는 http :\\163.180.98.64이다.

도서관소장 CD-ROM 타이틀

번호	Title	출판사	내 용	간기
1	SCI with Abstracts	ISI	전세계 과학 기술관련 저널 4천여종에 관한 색인초록 DB	월간
2	ISPEC on Disc	UMI	물리학, 전기 · 전자공학, 컴퓨터분야의 세계 대표적인 초록 DB	분기
3	Agris	Silver Platter	135개국 이상의 과학전문가들의 농업과학 및 기술 관련 정보	분기
4	ERIC	Silver Platter	미국 교육성의 교육자료 DB	분기
5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Silver Platter	문학, 언어학, 민속학 및 인문과학의 초록 DB	분기
6	Encyclopedia of Associations	Silver Platter	세계 1만1천여개 각종 협회 및 단체에 관한 DB	반년
7	Peterson's College Database	Silver Platter	미국 및 캐나다의 3천5백여 대학의 대학 안내자료	년간
8	CAT CD450	OCLC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서지데이타베이스	월간



〈제259회〉 최 용 섭

이수병 동문 추모제

추모시 낭송 등 각종 공연 선보일 예정

'故 이수병 동문 제22기 추모제'가 내일 오후 2시 수원캠퍼스 공과대학 앞 푸른광장에서 열린다.

'경희민주협의회(경민협)4 · 19 혁명연구소'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그간 '애국혁명열사 故 이수병 선생 기념사업회'가 단독적으로 준비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경민협이 직접 참여, 진행한다.

이병언(건축 4)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태호 대학원 학생회장의 경과보고, 박정윤(생물 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약력보고, 유족인사, 김종원 경민협 의장의 추도사, 추모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루어진다.

추모공연에서는 추모시 낭송, 독무, 노래공연 등을 선보이며 행사가 끝난 후 교직원 식당에서 간단한 식후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故 이수병 선생은 1959년 우리학교 경제학과에 편입, 3학년 당시 4월 민주항쟁을 맞아 교내에 '민족통일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반독재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5 · 16 쿠데타로 인해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975년 4월 9일 민청학련의 상층부인 인혁당 8명과 함께 사형당했다.

교수5명 도서기증 다양분야 총1천3백여권

지난 3월 한달동안 신건철(정경대 경영), 김병학(자연대 수학), 박원규(사회대 경영), 백영남(기계), 한태룡(유전) 등 5명의 교수는 1천3백만원 상당의 도서 1천3백여권을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신건철 교수 서양서 3백권, 김병학 교수 수학관련 일본잡지 3백권, 박원규 교수 단행본 1백권, 백영남 교수 단행본 2백60권 및 학위논문 90권, 한태룡 교수 서양잡지 2백50권이다.

'대통령배 축구대회' 우승

농구부 준우승에 그쳐

우리학교 여자축구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30일까지 효창종합운동장에서 열린 '4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축구부는 헤브론과 울산전문대, 한양여전을 7대 0, 1대 0, 2대 1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인천제철을 1대 0으로 꺾었다.

또한 농구부는 지난 3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97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연세대에 66대 72로 아깝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25일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3점차로 패하고 28일 건국대와의 경기에서는 85대 61로 완승을 거두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강정모(무역) 교수 동북아 경제학회장 당선

수원캠퍼스 강정모(무역) 교수가 지난 3월22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열린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됐다.

우리학교 교무처장,사회대학장 등을 역임한 강교수는 한국동북아 경제학회를 주최로 한 북한관계 · 동북아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식목일 행사 실시

수원캠퍼스 사무처에서는 오는 8일 식목 및 대청소를 실시한다.

총장, 부서장 등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식목 행사후 구역별 청소를 실시하는 1부와 자연대 주차장 옆 공터 먹거리 잔치의 2부로 나뉘어 치뤄진다.

한편 사무처는 오는 9일 있을 '대학종합평가' 대비를 위한 전체 교직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자연과학대학 시청각실이다.

취재노트

메뚜기파에도 봄은 오는가

◇…불티나는 한판승

중간고사가 다가옴에 따라 고황골의 오래된 두 조직, 메뚜기파와 눌러앉기파의 고질적 세력다툼은 중앙도서관의 열나는 실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노트子 알아보니

최근 메뚜기파 소탕에 나선 눌러앉기 파는 책가방팀, 책팀, 노트팀으로 구성된 행동대원을 각 주택에 신속히 투입, 적절히 배치해 완전 점령한 상태.

그들의 결전사를 거슬러 보면 시당국의 주택보급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 메뚜기파에도 봄날은 오는가.

◇…조금만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두 주시고요. 이건 덤으로…' 서천리에 나도는 이말이 웬말인가 노트子 알아보니.

교양강의동 부지의 한부분을 소유하던 지주의 무리한 조건제시로 학교측은 땅매입을 중단하고 착공하게 되었다고.

1만 獅형들이 사용하게 될 건물공사를 좌지우지 했던 당신의 상술에 이 노트子 놀랍고 대견스럽기만 할 따름이오.

◇…갈비 깡깡이

위가 텅빈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한다기에노트子 알아보니

먹을게 없어 위가 텅빈 위쪽 사람들이 꼬르륵 소리를 장단삼아 갈비뼈 깡깡이를 켜고 있다고.

여보소 나랏님들. 정치판만 보지말고 같은 민족 배나 좀 채워주시오.

◇…학생회 타임

양 캠퍼스에 '학생회 타임' 붐이 인다하여 무슨 소리인가 알아보니

당초 4월 2일과 3일 출범식을 하기로 했던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경과보고 및 사전통보도 없이 출범식 일자를 연기한 것.

2만 獅형들! 이제부터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1주일 정도 늦게 참가해 총학생회의 행사진행에 착오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Y·S표 물건

요즘 이소룡의 여러제자들이 광주지역에 나타났다고 하여 노트子 알아보니

떼거지로 서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름아닌 전경들. 곤봉 두개를 끈으로 엮은 Y·S표 신형 무기인 쌍절곤으로 獅형들에게 한 수 지도하고 있다고.

전쟁 · 기아 ·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불법폭력비디오를 전경들 시청각 자료로 쓰는지 노트子 궁금하오.